

'발등에 불'로 떨어진 유통망 전산화

표준화 서지 유통시스템 개발이 급선무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통망 구축이 출판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가 출판계에 긴급 지원하는 5백억원 가운데 1백여원은 유통 전산화와 정보화에 쓰이는 제안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판인들의 인식전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출판계의 숙원인 대형유통기구의 출현은 컴퓨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렇지만 뒷집진 채 '구두선'을 연발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통망 전산화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금 부족, 기술력 빈곤 등 문제 산적

한 출판관계자는 유통전산화를 다음과 같이 구획한다.

"수주와 발주업무를 중심으로 한 도매유통기구의 전산화가 핵심이다. 여기에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을 갖춘 소형서점과 출판사를 연결한다.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단말기와 연결하는 것으로 출판유통 전산화 및 정보화는 완성된다."

이를 위한 출판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10년 주기로 출판유통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거졌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은 사업주체의 부재, 자금 부족, 기술력의 빈곤 등이 빚어낸 당연한 결과였다. 때문에 사업은 언제나 원점에서 출발해야 했다. 이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출판연구소를 통해 출간된 관련 연구물들은 하나같이 '기본'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출협'의 주도로 추진하다 끝맺지 못한 '한국도서총목록 전산화작업'은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출판인들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던진다. 출판산업 현대화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 사업은 도서정보 전산화를 위한 첫번째 시도였다. 1900년부터 1979년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간행물 7만종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한국도서총목록》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미숙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에다 치밀한 분석과 계획이 따르지 않아 3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다. 서지사항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복 입력되었으며 입력요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다는 점

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도서정보 전산화 개발방안 기초연구》(한국출판연구소, 1997))

기회 있을 때마다 출판업 자동화를 주장해온 김종수씨(한울 대표)는 "표준화서지 유통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우선 표준서지를 만드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국제표준문헌번호(ISBN)'와 '판매시점동시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다지고 나면 표준서지에 해당하는 '유통도서총목록'을 만드는 일은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상식'에 반대한다. 그것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라는 것이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 표준서지 작성 및 출판의 역사는 120여년에 이르지만 ISBN의 역사는 30여년에 불과하다.

더구나 ISBN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매유통기구의 전산담당자들은 "ISBN은 유통회사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다. 이를 대체할 표준유통코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ISBN이 도서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책이라도 제각각인 마진율과 입수 경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격 변동같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의 형남석 전산과장은 "현재로서는 '선택식'을 코드 단일화를 통해 '선입선출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말한다. '선택식'은 바코드를 읽고 사용자가 판단해야 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진율이 높은 쪽을 출고시키는 것은 인지상정.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한번의 스캐닝으로 처리되는 편의점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방식 고수하는 낮은 인식도 걸림돌

유통회사들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 ISBN을 외면하고 독자적인 라벨을 부착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따로 만들지 않고 뒷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독자적인 라벨이 ISBN의 단점을 보완하기는 하지만,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양출판판매(주)는 ISBN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유통망 전산화의 성패는 출판인들이 독자들에게 한국출판의 구조적 모순을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 하반기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라벨부착에 투입했던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을 연간 1억원 정도 절감하게 된다.

도매 유통기구들은 컴퓨터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백곳 또는 천군데가 넘는 거래처에다 25만종에 이르는 유통 물량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한 일. 다만 문제는 전산화가 고립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수주와 발주업무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앞섰다는 보문당의 회계장부는 어찌 그토록 지리멸렬할 수 있었을까?

출판유통의 전산화가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닌 듯하다. 컴퓨터는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옮겨냈을 뿐이라는 유통회사 전산실 직원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프로그램 개발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익숙해지면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선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기존의 관행은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새로 문을 연 서점에 도매상에서 전화나 팩스를 설치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 남아 도서주문 및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는 유통회사의 제안에 대해 서점 측은 하드웨어까지 요구하는 형편이다. 더 큰 과제는 문화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일. 한양출판판매 전산실의 이호신 차장은 "자신

의 것에 대한 보호본능에서 벗어나 소득노출마저 기꺼이 받아들일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산화 성패는 출판구조의 모순 해결로

출판유통망의 전산화와 관련한 담론은 우리 문헌정보학계를 떠도는 유명인 '전자도서관'을 둘러싼 담론과 닮았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 따라서 문헌정보학계가 앞서 치르고 있는 홍역은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하다.

"자동화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덮어두고 안주하며 넘어갔던 기존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모순들을 아주 첨예하게 이용자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도서관의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디지털 도서관》 민음사, 37면)

'도서관'을 '출판계'로 바뀌어도 큰 무리는 없다. 결국 유통망 전산화의 성패는 출판인들이 독자들에게 한국출판의 구조적 모순을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제는 지독한 자사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지혜를 모을 때다. <최성일>